

‘누더기 새 아파트’에 입주민들 불만 폭발

광주 일부 신축아파트 창틀 금 가고 타일 들뜨는 등 하자 속출 이사 무기한 연기 등 불편...아파트측 “빠른 시일내 보수할 것” 관할 구청 공청회 추진 속 광주시는 피해 현황조사 파악 안해

광주지역 일부 신축 아파트에서 창틀에 금이 가고 타일이 들뜨는 등 각종 하자가 속출하면서 입주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광주시 동구와 계림동 D아파트 2차(648세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다수 세대에서 화장실과 베란다에 시공된 타일의 들뜸 현상, 창틀 새시 벌어짐, 벽면 균열 등의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 했던 박모(56)씨는 이사 일정을 연기했다.

아파트 측에서 수리용 자재를 구하는데 한 달 정도 예상된다고 하자 보수시점을 미뤘기 때문이다.

박씨는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의 브랜드를 믿을 수 있겠다 싶어 다소 비싼 가격임에도 구입했는데 현실은 하자투성이

다”며 “지난달 7일 하자내용을 접수했지만, 입주가 시작된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잠시 머무를 월세방을 찾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계림동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지난달 6~8일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입주점검 때 대부분 세대에서 하자보수를 신청했다”면서 “현재 90% 넘게 보수를 완료했으며, 자재 등이 부족해 지연된 나머지 하자보수도 이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주민의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동구청은 입주민과 아파트측 관계자를 불러 하자보수 관련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에 들어간 동구의 M아파트도 입주민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동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 ‘두드림’에는 지난 2월부터 입주민 수십명이 하자 관련 글을 올리고 있으며, 구청측에서 같은 내용의 민원제기를 자체에 달라고 호소할 정도다.

제기된 민원을 살펴보면 식탁 테이블 모서리가 훼손돼 있고 벽지는 떨어져 있다. 거실 벽과 바닥의 이음새 부분이 1cm 이상 벌어져 있거나 불박이장은 곳곳에 흠집 투성이었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아파트는 또 앞 도로와 인도가 너무 좁다는 민원도 제기돼 도로 폭을 늘리는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제기한 민원해결의 경우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최선을 다해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면서 “일부 민원에 따라 아파트 앞 도로 폭을 넓히는 공사도 마무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새 아파트 입주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파트 신축 허가(600세대 이상)를 내준 광주시는 하자민원 건수 등 기본적인 피해현황조사 파악하지 않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임상엽 광주시 도시재생국 건축주택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담당은 “6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하가는 광주시가 결정하지만, 아파트 하자 등 관리 문제는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하자민원 건수 등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미장·타일 마감 공사는 2년, 창호·가스·전기전력 설비 등은 3년, 철골과 지붕 등 구조물 관련 공사는 5년, 지반 공사는 10년이 하자 보수기간이다.

아파트측은 입주민의 하자보수 청구로부터 15일 이내 보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보수가 어려울 경우 보수 대상과 일정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15일이 지나면 입주민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자로 판정받으면 60일 이내에 보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두살 아기에 ‘찌끄레기’ 호칭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 왜? 대법 “모욕적 표현이나 뜻 몰라 피해 없어”

만2세 영아들에게 ‘찌꺼기’ 사투리인 ‘찌끄레기’라고 부른 것은 아이가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정신적 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신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 보육교사들은 2016년 8월 생후 29개월인 원생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들리니?”,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으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신씨는 보육교사들의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만2세인 피해자가 ‘찌끄레기’라는 모욕적 표현을 들은 경우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해자가 모욕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학대행위에 의한 정신적 피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1·2심은 “찌끄레기가 모욕적 표현인 점은 분명하지만 만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성폭행 혐의’ 가수 김홍국 무혐의 처분

경찰,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홍국(59)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은 “김씨의 간간·준간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21일 김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 지휘했다. 경찰은 A씨와 김씨를 따로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일주일 전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 말 김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A씨가 소송비용 1억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으며,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순천시의회 예비후보 입건

여수해양경찰은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의회 예비후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부터 자신의 주유소에서 어민들에게 공급

해야 할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차량에 판매하는 등 1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싸값에 사들인 뒤 주유소에서 일반 차량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유소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해경은 주유소 대표인 A씨의 아내 B씨도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무임승차 60대의 탈선...표 검사 요구에 승무원 폭행 ‘최고량’



○...무궁화호 열차에 무임승차를 한 60대 가 표 검사를 하는 열차 승무원을 폭행했다가 최고량.

○...국토교통부 광주지방철도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무궁화호 열차안에서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던 여성 승무원에게 18분 동안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주모(64)씨를 구속.

○...조사결과, 주씨는 익산까지 가려 했으나 승무원이 표 확인을 요구하자 “왜 나한테만 확인하느냐”며 승무원의 목살을 잡고 몸을 거세게 밀쳐 넘어뜨렸는데, 광주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승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철도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번엔 ‘광주 데이트 폭력’ SNS 공개...가해자 처벌 여론 확산

피명 든 신체 촬영사진 올려 피해여성, 동부경찰에 고소장

수원지구 집단폭행 피해자 변호인 살인미수 적용 촉구 의견서 제출

SNS상에서 광주 수원지구 집단폭행 사건과 광주의 한 여성이 데이트 폭행 피해를 본 장면을 연이어 공개되면서 폭력 가해자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은 8일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피해여성 A씨의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피해자 진술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동구 모 백화점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 폭행하고 보온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과 자신의 피명이 든 신체촬영 사진 등을 지난 5일 SNS에 올렸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의 폭행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됐고, 두 달 가까이 일련된 상황에서도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글과 함께 자신을 폭행했다는 전 남자친구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일부 게시했다.

해당 글이 SNS에 게시되자 수천건의 반향이 뒤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피해자 조



“강력 처벌 해주오” 광주 수원지구 집단폭행 피해자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가 8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전 남자친구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수원지구 집단폭행(2018년 5월 8일자 7면) 피해자의 변호인은 이날 가해자들이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했다.

피해자 A(31)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은 A씨가 서너 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며 집단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시민 제보(kke2kke@naver.com)로 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죽이겠다고 하며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